10.15686/fkl.2025..66.136

함락된 도시와 스톡홀름증후군의 여자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을 중심으로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목차

1 해방과 전쟁 그리고 여성의 사생활
2 여성의 이방인적 위치와 여순사건의 은폐된 진실 찾기
3 반공 가부장제의 형성과 스톡홀름증후군의 정신역동
4 맺음말

국문초록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은 '여순사건(麗順事件)'과 6.25 전쟁에 대한 여성의 기억과 증언을 통해 해방과 전쟁을 평등과 자유를 향한 여성의 꿈이 좌절되고 여성이 냉전 가부장제에 복속되는 과정을 그린 여성 서사다. 당찬 지식인 여성인 강서경은 여순사건과 6.25 전쟁을 겪으며 원동휘와의 사랑에 실패하고, 스톡홀름증후군에 사로잡힌 듯 자신을 능욕하려고 했던 임형규 대위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반공 분단사회에 안착한다. 강서경의 결혼은 여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자처하는 남성이 그 대가로 여성을 착취하는 '보호세 갈취'의 성격을 띤다. 임형규에게 강서경은 전쟁의 전리품인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 애정 서사의 배경막에 머물렀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절망 뒤에 오는 것』을 여성에게 해방과 전쟁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국문핵심어: 전병순, 1960년대 여성문학, 여순사건, 한국전쟁, 여성 서사, 냉전 가부장제, 스톡홀름증후군 등

1 해방과 전쟁 그리고 여성의 사생활

일전에 발간된 김태우의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은 한국전쟁에 관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을 통해 냉전의 수호자들에 의해 전쟁에 대한 여성의 비판과 고발이 억눌려왔음을 보여주었다. 1951년 5월 16일 밤, '국제민주여성연맹'(국제여맹·WIDF)의 초청으로 영국, 소련,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쿠바, 튀니지, 알제리, 중국, 베트남 등 18개 나라에서 전문직 여성 21명이 신의주에 도착했다. 중공군 개입 이후인 1950년 11월 5일을 기점으로 미군의 목표가 북한 내 인구밀집지역을 집중 공격하는 '초토화 정책'으로 바뀐 직후였다. 조사위원회는 약 열흘 간 평양, 신의주, 원산 등 북한의 여러 지역을 조사한 뒤 「우리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미 공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와 농촌, 집단 학살과 고문, 여성 강간과 조직화된 성폭력 등 한국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소련과 공산당의 선전물로 취급받았다.

이 보고서로 한국전쟁의 가해자로 드러난 미국 정부가 보수적 여성단체들을 활용해 조사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부추겼기 때문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방 국가 출신의 조사위원들은 귀국 뒤 "빨갱이" 취급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고, 국제여맹은 유엔(UN)에서 모든 지위를 박탈당했다.

위의 이야기는 매우 상징적으로 다가오는데, 조사위원회 여성들의 목소리가 국제 사회에 전달되지 못했던 것처럼 6.25 전쟁과 분단 그리고 냉전의 사이에서 여성의 전쟁은 사회적 애도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뿐더러 여성은 전쟁의 종식을 이야기하는 평화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목격자를 넘어 전쟁의 피해를 겪은 당사자이지만, 전쟁은 남성들의 상처이자 훈장이라고 할 만큼 여성은 전쟁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여성은 군국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 친미와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가 일상 문화로 자리잡음으로써 남성과 국가가 만들어낸 기억과 욕망을 소비해야 했고, 그 결과 분단 사회에서 불완전한 시민권자, 최하위 민중(subaltern)의 위치에 놓였다.[1] 전쟁과 냉전체제는 사병으로서의 남성을 1등 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에게 종속을 요구하는 가부장제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전쟁이 함구되는 것은, 전방에서 총을 든 남자들에 비해 여성들이 머무는 후방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전쟁은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불가피한 폭력으로 이야기되지만, 기실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다. 여성의 신체는 깃발을 내걸고 행진하는 승리의 은유로, 점령군은 패배한 민족 여성들의 성을 짓밟는다. 또한 남자들이 부재한 후방에서 여성은 가장의 지위로 도약하지만, 노동 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기에 성매매로 내몰리기 쉽다. 다른 한편으로 순결을 이상화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고백은 '더럽혀진' 여자라는 낙인의 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은 전쟁에 대한 기억을 억압하는 편을 택하기 마련이다. 전쟁과 냉전체제 종식을 위해서는 여성과 소수자의 전쟁 기억이 말해져야 하지만 사실상 침묵이 강요됨으로써 여성의 전쟁은 사회적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전병순(1929-2005)이 목격자이자 당사

1 조은, 「냉전문화 속 여성의 침묵과 기억의 정치화」, 『여성과 평화』 제3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3, 71 - 87쪽.

자로서 자신의 경험을[2] 바탕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3](이하 "여순 사건(麗順事件)")과 6.25 전쟁을 재현한 『절망 뒤에 오는 것』가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 때문이다.

전병순은 1960-70년대 한국문학 장에서 『또하나의 고독』, 『독신녀』 등 주로 사랑과 불륜을 소재로 한 대중적 장편소설로 인기를 누렸지만, 그의 등단작들은 주로 '여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1960년 여성지인 『여원(女苑)』을 통해 「뉘누리」[4]로 등단하고 그 이듬해인 1961년에 한국일보 현상 장편 모집에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재등단했는데, 『절망 뒤에 오는 것』은(연재 기간: 1962.3.6-10.19) '여순사건'을 상세히 다루었을 뿐 아니라[5] 반공주의가 우세한 사회적 분

---

2 전병순은 1948년 숙명여대 국문과 재학 중에 9월부터 학생 데모로 휴교가 되자 은사의 추천으로 여수여자중학교 교사로 부임해 21세가 되는 1949년 2월까지 약 6개월 간 여수에 머묾으로써 여순사건의 증인이자 당사자가 되었다. 전병순은 이때의 충격을 "나는 그때 갓 스물의 나이로 '우연한 운명의 장난' 같은 표현으로 돌려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전율스러운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망막 안에 새겨넣게 되어 버렸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한 바 있다. 전병순, 「작가의 말」, 『절망 뒤에 오는 것』, 중앙일보사, 1987, 5쪽.

3 여수·순천 사건(麗水順天事件) 또는 여순 사건(麗順事件)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당시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의 군인 2,000여 명이 중위 김지회, 상사 지창수 등 남로당 계열 군인을 중심으로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무장 반란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반란군에 의해 경찰 74명을 포함해 약 150명의 민간인, 정부측 진압 군경에 의해 2,500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은 이승만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일어났다.

4 전병순은 1950년대에 이미 「준교사」(『신문학』 제2호, 1951.12), 꽁뜨 「원통한 이야기」(『갈매기』 제2호, 1951.3·4 합병호(추정))를 발표했지만 작가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혼 후 전희순이라는 이름으로 1960년 1월 『여원(女苑)』의 단편소설 공모에 당선되어 등단한다. 「뉘누리」는 8년 만에 간첩이 되어 돌아온 남편을 마주한 아내 혜숙의 인간적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소설의 배경 공간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남편이 폭도로 내몰려 사라진 후, 혜숙이 핏덩이를 업고 마을을 떠나 친정으로 숨어들지만 경찰의 감시로 친정 가족에게서도 내쫓겼다는 이야기로 보아 여순사건의 후일담임을 짐작할 수 있다.

5 전흥남에 의하면 김동리의 「형제」는 한국문학사에서 최초로 여순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사건의 발생 배경이나 전개 과정 등을 명확하게 그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좌익의 도덕성 비판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였다. 「『절망 뒤에 오는 것』에 나타난 '여순사건'의 수용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 제127호, 2010, 399~421쪽.

위기 속에서 이 사건을 좌익 군인의 폭동이 아니라 이승만의 군대가 여수 시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국가 폭력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작품이다.[6] 『절망 뒤에 오는 것』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짐으로써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유족회가 꾸려지는 일련의 흐름에 조응하며[7] 여순사건의 진실을 캐묻고 있는 1960년대 문학의 성과작으로 볼 수 있다. 여순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좌익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권력을 잡기 위해 저지른 '정초적 폭력'으로 그 규모의 거대함과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문단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했던 1950년대에는 재현되기 어려웠다.

이렇듯 여순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전병순은 1960년대 문단에서 4.19 문학의 공인된 기수가 아니라 연애, 결혼, 가족을 주제로 한 소설을 신문에 연재하며 대중 소설 창작에 뛰어들었다. 동시대 다른 여성작가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행보는 1960년대 문단의 여성 문단에 대한 게토화 전략, 여성작가의 저자성을 대중성에서 찾은 신문 매체의 유혹, 여성 가장이라는 가족적 현실 등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중적 전회'는 휴전이 되며 후방으로 복귀한 남성들을 주축으로 사회재건이 시작되고, 1960년대에 남성을

---

6 이 작품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선행 연구로 다음을 참고할 것. 이시성, 「여순사건의 '다른 기억'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정치성: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제93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5, 187-219쪽; 전흥남, 「『절망 뒤에 오는 것』 오는 것에 나타난 '여순사건'의 수용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 제127호, 2010, 399-421쪽; 최미진, 「사회적 멜로드라마의 역사성과 대중성—전병순의 『絶望 뒤에 오는 것』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319-343쪽.

7 한국전쟁 전후에 한국 군경에게 학살당한 이들의 유족들은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하고 민주화를 위한 과도적 시기가 도래하자 스스로 권리 회복을 위한 주체임을 자인해 유족회를 조직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1961년 5·16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이 유족회를 해체시키고 유족회 간부들을 반국가행위자로 조작하면서 수그러들기 전까지 계속되었다.(이창현, 「4월혁명기 피학살자 기념사업과 그 의미」, 『사림』 제73호, 수선사학회, 2020, 223-252쪽.) 이들 학살 유족회 구성은 대체로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경상도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민간인 학살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 유족회'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도 한참 후인 2001년 6월 12일에 발족되었다.(정호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결성과 진상규명운동-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2호, 2006, 41-76쪽.)

냉전 개발의 주체로 호명한 박정희 모더니즘이 진행됨으로써 공사영역의 젠더 분할이 이루어진 데 따른 문화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60년대 남성중심적 문단이 '매스콤 문학'으로 칭함으로써 여성문학을 주류 문단에서 분리해 '게토화'했던 전략에 거리를 두고, 여성작가를 한국문학의 서사적 젠더 분할이라는 문화 혹은 제도와 '협상'함으로써 문인으로서 생존을 도모하면서도 젠더 서사를 통해 남성중심적인 주류 질서에 균열을 가하는 전략가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절망 뒤에 오는 것』을 '연애소설이냐 여순소설이냐', '통속소설이냐 사회소설이냐'는 이분법적 틀에 가두지 않고, 여순사건과 6.25 전쟁에 대한 여성의 기억과 증언을 통해 해방과 전쟁을 자유를 향한 여성의 꿈이 좌절되고 여성이 냉전 가부장제에 복속되는 과정으로 그린 여성 서사로 읽고자 한다. 『절망 뒤에 오는 것』은 해방과 전쟁을 한 여자의 굴곡진 연애사의 배경으로만 차용한 불완전한 혹은 결핍된 사회소설이 아니다. 소설 초반부에서 당찬 여성 지식인이었던 강서경은 여순사건과 6.25 전쟁을 겪으며 동료 교사이자 사회비판적인 지식인 원동휘와의 사랑에 실패하고, 자신을 능욕하려고 했던 임형규 대위(고릴라)와 결혼하는 것으로 남한의 반공 분단사회에 안착한다. 강서경과 '고릴라'의 결혼은 마치 여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자처하는 남성이 그 대가로 여성을 착취하는 '보호세 갈취'의 성격을 띤다. 강서경은 임형규의 전리품인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열정을 결여하고 있어서 일상의 무의미와 권태에 시달리는 여성 독자에게 자극과 쾌락을 선사하지 못한다. 역사적 사건이 애정 서사의 배경막에 머물렀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작가는 마치 기억의 복원작업을 하듯이 여순 사건과 6.25 전쟁의 전개 양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했다. 이는 『절망 뒤에 오는 것』을 단순히 대중소설이 아니라 여성에게 해방과 전쟁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여성형 역사소설로 조명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점을 간과함으로써 『절망 뒤에 오는 것』에 대한 독해는 충분히 독해되지 못했다. 한국일보 현상문예 심사위원인 최정희와 황순원은 작가의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추켜세웠지만 남녀 관계에 관한 비중이 높은 것을 통속성의 징후로 간주함으로써 "신문소설이란 것에 얽매여 한 작품으로서의 진가를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8] 1987년 민주화 이후 『절망 뒤에 오는 것』은 분

단문학의 성과작으로 새롭게 조명되며 연구가 본격화되지만, “개인 간의 얽히고 설킨 사연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비중을 두”어[9] 분단 문학으로서의 위상이 약하다는 소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지역학이 활기를 띠며 관련 연구가 늘어났지만 ‘‘20%’ 여순소설’[10]로 취급됨으로써 강서경이 Y시를 떠나는 이후의 서사는 분석조차 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서경의 이야기가 우세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전체 규모가 담기지 못했다는 비판은 해방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음을 뜻한다. 여성의 해방과 전쟁에 대한 비판적 상상력은 기지촌과 “양공주” 등 특정한 장소와 직업군에 갇혀 있는 것이다.

2 여성의 이방인적 위치와 여순사건의 은폐된 진실 찾기

『절망 뒤에 오는 것』은 4.19혁명으로 불어온 자유의 물결에 올라타 이승만 반공국가가 가했던 침묵의 재갈을 풀고 ‘여순사건’의 진상을 상세히 밝히는 한편으로 이 사건의 반인륜적 범죄의 성격을 드러낸다. 이 소설은 여순사건을 좌우익 간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쟁투로 벌어진 민족 공동체의 비극으로 조명하고 이데올로기 갈등을 넘어서는 민족주의나 휴머니즘의 가치를 강조하는 식으로 진실 규명을 소홀시하고 성급하게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순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 당사자로서 작가는 이해불가능한 사건 앞에서 느꼈던 ‘절망’을 바탕으로 함락당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복기하고, 도시에 퍼부어진 과잉의 폭력에 주목함으로써 여순사건을 정의하기 쉽지 않은 사건으로 초점화한다. 국가는 왜 시민들에게 과잉의 폭력을 퍼부었는지, 여순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으로 정

8 “체험과 실지 조사와 상상력 등 상당히 성실하게 문학 수련을 쌓은 이의 작품”(황순원) “작가는 문학을 쓰자는 생각보다 ‘신문소설’을 쓰자는 생각을 더 머리에 두었던 것이 아닐까?”(최정희) 한국일보 1961년 4월 2일자 심사평을 참고할 것.

9 전흥남, 위의 글, 419쪽.

10 하채현과 문동규는 『절망 뒤에 오는 것』의 문학적 성과에 주목하면서도 “전체 소설의 약 20% 분량에만 10.19를 다뤘다”고 함으로써 강서경이 여수를 떠난 이후의 서사를 잉여로 취급한다. 「10.19: 비국민과 개죽음」, 『픽션과 논픽션』 제5호, 2023, 135-160쪽.

의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료한 답은 끝내 제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연히 Y시(여수시-필자)와 운명을 함께 하게 된 여교사를 통해 작가는 여순사건을 '제노사이드(集團虐殺, genocide)'[11], 즉 이승만 정권이 남한에서 사회주의자를 몰아내고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반공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특정 지역민을 희생 제물로 삼아 자행한 집단 학살로 그려낸다.

국가보안법이 작동하는 반공 사회에서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이렇듯 대담한 관점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관한 문학 정전을 참조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바, 즉 사실을 중시했기 때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작가는 서경과 자신을 겹쳐보는 대중의 시선에 대해 여성작가로서 느끼는 부담을 피력하며 "다큐멘터리 아닌 소설"(작가의 말)이라고 강조했지만, 『절망 뒤에 오는 것』은 소설적 상상력이 덧붙여졌지만 작가 자신의 체험과 관찰이 중심이 된 '오토픽션'(Autofiction)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이다. 서울에서 온 Y여중의 교사 강서경은 숙명여대가 휴교하자 서울을 떠나 여수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작가 자신의 경험이 투영된 인물이다. 작가는 산문 「『절망 뒤에 오는 것』 오는 것』을 잉태할 무렵」에서 자신이 언제나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으로 노트 세 권에 여순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메모해 두고 또 신문이나 기타 기사들을 모아두었으며, 한국전쟁이 일어나 하숙방에 두고 피난을 가느라 메모를 분실했지만, 다행히도 사건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소설을 쓰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12] 훗날 1980년 5월에 광주항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작가가 큰 충격을 받아 편집증 증상을 호소했다는 유족의 증언은 여순사건이 작가에게 쉽게 망각되지 않는 트라우마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13]

---

11 제노사이드는 국가가 주도한 시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국가와 민간인, 국가의 지도층과 국가 내외의 특정 민간 공동체 간에 이루어지는 일방적 폭력행위로, 폭력 행위의 대상이 비무장 민간인, 즉 성인 남녀를 포함하여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특정 집단의 기반시설 및 생물학적 구조 전체를 파괴 및 절멸시키려 한다는 면에서 총체적 절멸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김상기, 『제노사이드 속 폭력의 법칙』, 선인, 2008, 120-121쪽.

12 전병순, 「『절망 뒤에 오는 것』을 잉태할 무렵」, 『또 하나의 사랑-전병순 에세이』, 경미문화사 1977, 277쪽.

13 2025년 8월 28일 유족(강영주 선생님)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전병순은 자신의 고향인 광주에서 일어난 5·18 광주민중항쟁의 내막을 알고 충격을 받아 시 「고혼(孤魂)들을 위하

작가는 좌우익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못하는/않는다는 점에서 '이방인'에 가까운 여성의 시선을 통해 여순사건을 포착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주류 문학이 주로 이념형의 남성 인물을 통해 해방과 전쟁에 대한 총체화된 시선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피해 당사자인 여성의 경험에 주목함으로써 여순사건을 군인이 국가의 후원 하에 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부여받음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한 폭력으로 초점화한다. 전쟁은 인간의 특성을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분리하고 위계화하는 성차별주의를 통해 남성을 전사로, 여성을 희생자로 내모는 가부장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관찰과 고발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작가는 여순사건을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한 도시와 무고한 양민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퍼부은 이승만 정권의 절멸 프로젝트로 가시화한다.

이러한 점을 참조해 이 글은 여순사건을 해방을 맞아 자유를 향해 비상하는 여성들을 눌러 앉히는 반공 가부장제 국가의 탄생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전병순은 이 소설을 통해, 8.15 해방으로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억눌리고 지연되었던 여성해방의 물결이 도시를 휩쓸지만, 4.3 항쟁, 여순사건 등 "빨갱이" 만들기 작업이 시작됨으로써 남한에서 분단과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사병으로서의 남성이 사회의 주역을 차지함에 따라 해방세대 여성들의 자유를 향한 도정이 중단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해방기의 많은 매체들에서 일제히 '노라의 해방'을 이야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성에게 해방은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지연되었던 여성해방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였다. 이러한 판단을 증명하듯이 해방이 되자 서경과 그의 20년 친구인 혜련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향인 서울을 떠나 먼 타지인 Y시로 향한다. 이들 해방세대 여성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시도하는가 하면, '낭만적 사랑'을 통해 '날개 달린 에로스'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서경은 "어차피 나도 누구나 애인을 갖게 될테니까"(원문 그대로-필자)[14]라고 생각하며 '호모 에로티

여」(1980년 6월 4일, 미발표 원고)을 창작하기도 했다.

14 위 인용문은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애인을 갖게 될 테니까"라는 의미로 보인다. 전병순, 『절망 뒤에 오는 것』, 삼성출판사, 1972, 25쪽. 이후 작품인용시 본문에 쪽수 표기.

쿠스'로 자기를 정체화하고 "체격과 지성이 기준에서 합격"이며 유머러스한 대화의 기술을 가진 원동휘에게 온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기 때문에 서경은 혜련에게 원동휘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고백을 듣자 충격을 받아, 주말로 약속된 돌산 식물원 데이트에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마음 먹는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오동도의 대밭길을 걸으며 한 데이트 약속은 여순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지켜지지 못한다.

서경은 낭만적 사랑에서 여성해방의 가능성을 찾는 성적 주체로, 이 작품에서 사랑은 단순히 흥행을 위한 대중서사의 관습적 장치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낭만적 사랑'의 이야기들은 부유한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신분 차이에도 한눈에 반하고, 여성이 결혼으로 신분 이동의 기회를 획득하는 상투적 문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박탈당한 자들의 반(反)사실적 사고로 풍자되기도 한다. 근대적 사회계약으로 남성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되지만, 여성은 그런 남자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에 사랑의 환상에 매달린다고 분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은 봉건적 공동체주의가 해체되고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어 남성과 여성이 연애와 결혼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을 행사하게 된 시기에 발생한 새로운 남녀 결합의 모델로, 여성이 열정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발적으로 성애적 관계를 실현함으로써 계급 질서나 가족 제도에 도전하는 급진 문화이기도 하다. 서경과 혜련의 열정은 일제가 물러남으로써 신여성들의 좌절된 여성해방의 기획이 재부흥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발발함으로써 자유를 향한 강서경의 계획과 모험은 좌절되고, 연이어 6.25전쟁이 발발해 남한에 반공냉전체제가 형성됨으로써 서경은 안전을 위해 남성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종속적 위치로 내몰리게 된다.

전병순은 전쟁체제 하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기억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증언들을 쏟아낸다. 1장의 제목이 "청춘의 상흔"인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서경은 진압군에 의해 좌익 교사로 몰려 사형장에 끌려가는 등의 위기를 겪는다. 그러나 '상흔'이라는 말은 비단 죽음의 고비를 겪었다는 것을 넘어서 서경이 여순사건을 통해 여성으로서 자신의 취약성을 경험했고, 그 공포가 영혼 깊이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소설의 첫 장면은 서경이 진압군의 '고릴라'(임형규 대위)에게 성폭력을 겪을 뻔한 위기를 겪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형장에 끌려갔다가 목숨을 구하고 "나흘 만에 겨우"(9)

기숙사로 돌아온 서경은 또 다른 위험에 휩싸인다. “거대한 체구, 치켜오른 눈꼬리”(10)의 고릴라가 서경을 뒤따라와 방 문을 잠그고 “시간이 없다”(10)며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강간하려 하기 때문이다. 공포에 질린 서경은 “천벌을 받을 놈들! 깨끗이 죽여주지 않구!”(10)라고 울며 저항하는데 강간을 당한 후에는 사형장으로 끌려가 처형당하게 될 것을 예감하며 ‘깨끗이’ 죽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서경의 거센 저항으로 성적 쾌락이 시들해진 고릴라는 강간 시도를 중단하지만, 서경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안전하지 않으며 남성과의 관계에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선 약자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강간 장면은 독자에게 상당한 혼란을 안겨주는데, 서경을 강간하려고 했던 가해자가 “반란군”(작가의 표현 그대로-필자)을 제압하기 위해 Y시에 들어온 진압군의 우두머리, 즉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고릴라는 “전쟁에서 지면 으레 누구나 당하는 거지…..”(11)라며 강간을 전쟁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간주한다. 이는 강간이라는 비인도적인 행위는 개인의 인격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조직화된 폭력이자 전쟁 기술로 암시한다. 고릴라는 태평양 전쟁기에 일본 군대의 일원으로 “열대 지방의 이국여자들”을 강간했던 일을 추억처럼 떠올리는 등 강간을 정복자, 즉 전쟁에서 상대를 무너뜨린 군대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 저지르는 특권적 행위로 간주한다. 고릴라는 “반란군”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토벌대의 대장으로서 패배한 적지의 여자인 서경에 대한 강간을 정복자의 권리로 여기고, 강간 행위를 통해 단순히 성적 쾌락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전 자바 • 봄베이 • 시뽀 • 몰메인, 가는 곳마다 계집애 한둘씩은 맛보던 지원병시대의 그 짜릿하고 지독한 쾌감”(11)을 재체험하기 기대했던 것이다.

이처럼 강렬한 이 소설의 첫 장면은 Y시와 시민들의 안녕에 과연 “반란군”과 “진압군” 중 누가 더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으로 독자를 이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공론장은 친미 혹은 반미를 외치는 양 진영이 과잉 독점함으로써 ‘젠더’는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로 축소되었던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작품은 여성이 겪는 폭력을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대담한 발상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은 낭만적 사랑이 중단된 이후 강서경이 겪는 여러 수난들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금기시된 기억과 증언을 시도한다. 마치 일지를 작성하듯이 날짜를 기록하고 주요 사건을 언급하는 식으로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고, 진압군이 여수로 들어온 이후의 시간이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죽음과 파괴의 과정이었음을 재현한다. 먼저, 깊은 밤 도시를 흔들던 총격 사건 이후 거리에 출현한 군인들, 총격당한 시체들, 공산 괴뢰군이 내려온다는 소문, 중앙통 인민대회에서 벌어지는 인민재판을 통해 "반란군" 지배 하의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가 묘사된다. 영암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14연대 군인들이 봉기함으로써 약속한 일요일이 돌아왔지만 서경과 동휘는 소풍을 떠나지 못하고 반란군 치하의 일주일 동안 교실 마룻바닥 밑으로 들어가 숨었다는 이야기가 간략히 서술된다. 그리고 1948년 10월 27일, 즉 함포사격과 함께 진압군이 여수로 들어와 "빨갱이" 토벌에 성공한 이후의 시간이 훨씬 더 세심하게 공들여 재현된다. "서동 일대에선 아직도 이따금 불기둥이 솟아오르곤 한다. 남해 해상은 온통 장밋빛 구름으로 덮여버렸다. 그것은 마치 지구의 마지막이나 지옥의 앞바다를 연상케 했다"(9)로 시작되는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진압군의 등장으로 Y시에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증언한다.

> "…견딜 수 없는 비애가 황량한 바람처럼 서경의 가슴을 쓸어갔다. 그네들과 함께 덤벼 도시 재건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추호도 우러나지 않는다. 하루속히 서울로만 돌아가고 싶다. 서경은 발길을 되돌려 세웠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발부리를 내려다보며 무지막지한 화재의 원인을 궁금히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
> 국군 제 X연대가 항만을 봉쇄하고 제 XX연대가 육로를 막아 밀고 들어올 때 독 안에 든 쥐처럼 꼼짝 못하게 되어 버린 반란도배들. 그 안에서 모두 개새끼처럼 새까맣게 타서 죽어버리거나 두 손 들고 항복해 나오라는 국군의 작전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열흘밖에 차지해 보지 못하고 다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가를 못 먹는 감, 찔러나 버리는 격으로 불질러 버린 반란 도배들의 마지막 발악이었을까?
>
> 그러나 그것은 어느 편이건 너무나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바다 저편에 군함이 정박했을 때부터 반란군들은 모조리 육로를 뚫고 도망치다 막히면 산줄기를 타고 입산해 버린 것이다. 남은 건 어수룩한 시민들과 그밖에 주착없이 부역한 무리뿐이었다. 텅 빈 도시를 에워싸

고 무슨 승리고 진압이고 말할 것도 못 된다. 군의 정찰 부족으로 희생은 일반 시민에게만 컸다.”(68)

위의 인용문은 서경이 폐허와 다를 바 없이 파괴된 도시와, 잿더미 위에서나마 살아가기 위해 움막을 치고 있는 시민들을 목격하며 절망감을 토로하는 대목이다. Y시의 살풍경한 거리와 난민과 다를 바 없는 시민의 모습은 진압군을 해방자가 아니라 파괴자로 초점화한다. 4장 ‘회의에의 질곡’에서 여러 대의 트럭에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두 손을 묶인 사형수들과 저마다 삽과 괭이를 멘 인부들이 탄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그 뒤를 기관총과 수류탄을 찬 군인들의 차가 뒤따르는 장면을 통해 국가에 의해 조직적인 학살이 이루어졌음이 암시되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트럭을 뒤따르는 노부부의 비명과,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서 죽은 갓난아기 등은 진압군의 폭력이 정당한 이유나 명분을 결여한 반인륜적인 광기였음을 고발한다. 작가는 진압군대가 Y시로 들어섰던 시점은 “반란군”들이 이미 입산하고 도시에 남은 것은 “어수룩한 시민들”뿐인 때라는 점에서 진압군대의 폭력이 사회의 정상화에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서경은 “무엇보다 마음이 추워 견딜 수 없다.”(69)고 고백하며 이처럼 인간의 상상을 초과할 뿐 아니라 인륜성을 저버린 범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역사학자 김득중은 여순사건을 분단정부수립과 국가 전설 과정의 중요한 성격을 드러내주는 감춰진 기반이자 반공체제를 탄생시킨 한국현대사의 핵심적 사건으로 정의한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그간 ”려수군인폭동’ ‘국군폭동’ ‘여수폭동사건’ ‘여순병란’로 불리며 봉기의 주체를 제14대 연대 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토벌대와 이승만 정부의 존재를 감추고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공산주의자들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해 왔다. 여순사건은 제14대연대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도 항쟁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명령을 군인들이 거부하면서 시작되어 지방 좌익세력과 지역 주민들이 봉기에 호응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 수개군으로 파급되었는데, 이 사건의 심층에는 토지개혁, 친일파 척결 등 해방 후 풀어야 할 과제가 누적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에 따른 통일정부 수립 좌절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은 비가시화된

채 여순사건은 그간 거대한 외부의 적을 상정함으로써 그 공포를 더욱 커지게 하고, 이를 통해 적와 아를 구별하는 이분법을 강화하는 냉전 반공체제를 탄생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우익을 중심으로 좌익 세력을 몰아내고 집권에 승리하기 위해 여수와 순천 지역에 폭력을 퍼부었다. 여수의 군인과 지역 좌익 세력이 봉기한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진압과 학살과 통제는 지속되었다. 또, 좌익이 경찰, 우익 인사를 학살한 경우보다는 진압군이 지역 민간인을 학살한 경우가 훨씬 많았고 더 잔인했다. 약 1만명의 지역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한국 군대와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처벌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빨갱이였기 '때문에' 처벌 받은 것은 아니라, 처벌 받은 뒤에 빨갱이가 '되었다."고 할 정도였다.[13]

여순사건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그 나름의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는 폭력행위인 '전쟁'이 아니라 국가가 특정 지역민의 절멸을 목적으로 기획한 제노사이드의 성격을 갖는다. 고릴라가 서경을 강간하려고 하면서 "빨갱이 새끼는 모조리 죽어야 돼. 반란을 일으킨 이런 도시 하나쯤 대한민국 지도에서 지워 버려도 상관없어."(11)라고 한 것은 결코 실언이라고 할 수 없다. 여순사건이 사실상 나치 '홀로코스트'와 유사한 절멸 프로젝트였음을[16] 진압군의 통제와 지배가 장기화되면서 Y시가 평상시의 법과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상태' 혹은 치외법권 상태의 공간으로 변모한 데서도 알 수 있다. Y여중은 "반란군" 치하에서 피난처나 방공호로 이용되었지만 진압 군대가 들어온 후에는 시민들을 구류하기 위한 '수용소'로 변모한다. 반란군이 제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교실 마룻바닥에 숨어있던 학생들은 만세를 부르며 지상으로 나오지만 이들을 맞이한 것은 진압 군대가 겨눈 총부리다. 이들은 "빨갱이 선생"이나 "빨

15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삼인, 2009, 49-54쪽 참조.

16 1987년 6.10 항쟁 이후 민주화의 물결이 일렁이자 전병순은 『절망 뒤에 오는 것』을 재발간하며 자신이 근무했던 여수여중을 방문해 참혹했던 사건의 자취를 더듬는 한편으로 새로 쓴 '작가의 말'에 "한마디로 여순사건은 당시 그 어느 분이 하명했다고 전해지듯이 '대한민국 지도에서 여수 하나쯤 지워버려도 되니까'라는 정도로 치열한 소탕작전이 전개됨으로써 좌우가 서로 잔학의 극에 치달았던 것이다."라는 문장을 남겼다. 전병순, 「작가의 말」, 『절망 뒤에 오는 것』, 중앙일보사, 1987, 343쪽.

갱이 새끼”로 불림으로써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 운동장에 무릎 꿇리며, 충분히 먹지 못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조차 없어 대야에 소변을 누어야 하는 비천한 존재로 전락한다.

이렇듯 함락된 도시에서 시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죽여도 그 죄를 묻지 않는 ‘벌거벗은 생명(homo sacer)’이다. 진압군들이 양민들 속에 사회주의자가 끼어 있을지 모른다며 동료 시민에 대한 고발을 부추기자 이른바 시민이 동료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손가락 재판’이 시작되고, 지목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재판은커녕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즉결처형된다. 불과 5일 전에 “반란군” 치하에서 진행되었던 인민재판보다 더 참혹한 학살이 진압군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서경과 동료 교사들 역시 “빨갱이” 혐의를 받아 방금 죽은 시체들 곁에 무릎이 꿇려진 채 총살당할 위기에 처한다. 여순사건은 한 지역을 제물로 삼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빨갱이”를 탄생시킴으로써 이승만 정권이 냉전권력을 탄생시키기 위한 ‘정초적 폭력’이었던 것이다.

3 반공 가부장제의 형성과 스톡홀름증후군의 정신역동

3장에서는 주로 Y시를 떠나 고향인 서울로 되돌아가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다시금 강서경이 해방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중후반부의 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강서경이 원동휘에 대한 애착을 떨쳐 버리지 못하면서도 고릴라의 아내가 되는 결혼 서사에 주목하되, 이 소설의 가장 문제적인 측면인 강서경의 고릴라에 대한 감정을 스톡홀름증후군의 정신역동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애초의 공포와 증오의 감정은 차차 호감과 감사로 변모하면서 강서경은 상처한 고릴라의 두 번째 아내가 된다. 그의 고릴라에 대한 감정 변화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데, 고릴라는 만인 앞에서 그의 뺨을 때려 수치를 가하고 강간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죄 없는 Y시의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서경의 결혼은 여순사건이 그 자신에게 준 절망을 외면하는 것이자, 가해자와 공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학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이러한 결정은 서경이 고릴라에 의해 통제되고 길들여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냉전 가부장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율적인 개인으로서의 주체 개념이 해체된 이후 '에이전시(Agency)' 개념을 통해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에 복속되는 과정이지만, 기존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약을 받으면서도 그 사회적 조건에 대응하는 존재라는 것, 즉 구조에 대해 순전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기존 질서에 대한 교란이나 변혁의 가능성도 지닌다[17]고 주장한다.

강서경의 결혼은 고릴라, 즉 가해자와 공모하고 그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상황에 처한 약자인 여성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고릴라에 대한 강서경의 감정과 태도는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순적 현상인 스톡홀름증후군과 매우 흡사하다.[18] 임형규 대위는 "고릴라"라는 별칭이 말해주듯이 거대한 체구를 가진 포악한 성격의 중년 남자다. 서경에게 이성애적 관심이 있는 이병수 중위는 "약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아주 친절해요."라는 단서를 붙이면서도 "대대장은 무서운 사람이에요."(51)라면서 그가 "이층에서 아래층으로 부하를 던져버린 일"(57)과 "빨갱이"를 수용한 섬에서 다섯 명의 남자를 담담하게 즉결처분, 즉 처형했다는 일화를 들려준다. 서경은 "사람을 다섯이나 죽이고 온 표정이라곤 곧이들리지 않"(53)게 호방한 웃음을 터트리는 고릴라에게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래도 저는 퍽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해요"(51)라고 고릴라를 옹호한다. 원동휘의 "후리후리한 키, 귀골답게 희고 기름한 얼굴, 명석한 두뇌, 날리는 익살, 성급한 만큼 선명한 감정"(41)으로 묘사된 지적이고 인간적인 풍모와 비교해 볼 때 고릴라는 서경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부족해 보인다. 서경은 심리적으로 사디스트에게 끌리는

17 우에노 지즈코, 아라라기 신조, 히라이 가즈코, 서재길 역,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가려진 피해자들의 역사를 말하다』, 어문학사, 2020, 398쪽.

18 '스톡홀름증후군'은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 은행 인질극에서 처음 유래한 용어로, 은행 직원인 세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가해자인 두 명의 인질범에게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해자를 이해하거나 옹호하려고 하는 등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다. 긴 인질극 과정 동안 인질범은 인질의 목숨을 위협하는 동시에 친절을 베풀기도 했다. 인질은 인질범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감정적 유대감을 쌓아 자신들을 구해주려는 경찰을 적으로 돌리고, 인질범을 보호하고자 했다.

여성 매저키스트이거나, 지성이 부족하고 유혹과 암시에 약해서 가해자에게 종속된 것일까?

디 그레이엄 등은 남성의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폭력적인 남성에게 보이는 반응이 인질이 인질범에게 보이는 감정의 양태와 유사하다고 함으로써, 스톡홀름증후군 개념을 통해 이성애자 여성의 애정 생활에 대한 탈낭만화된 분석을 시도한다. 디 그레이엄에 의하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숨쉬듯 언제나 남성 폭력을 두려워하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으며 불특정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남성을 화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여성 인질범의 부조리한 반응처럼 공격적인 남자에게 유대감조차 느낀다. 심지어 스톡홀름증후군의 사례에서 인질이 인질범과의 관계를 성애화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폭력적인 남성에게 성적으로 이끌린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반응은 인질범이 먼저 인질에게 향하는 공격과 위협을 성애화한 데 따른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폭력적인 남성으로부터 성희롱과 강간 등 성적 위협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할 때 제대로 해석될 수 있다. 성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질이 인질범-인질 간의 상호작용을 '연애화'해 버리면 양쪽 모두 이 상호작용을 '정상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인질이 된 여성은 폭력적인 남성에게 감정적, 성적 애착을 갖는 것으로 헛되이 구원자를 기다리거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 공포를 줄이려는 경향을 보인다.[19] 폭력적인 남성에 대한 여성의 유대감과 성애는 여성의 취약성, 즉 수동성만이 아니라 여성이 탈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기보존의 활로를 찾는 주체임을 암시한다.

서경과 고릴라의 관계는 언뜻 앙앙불낙하던 남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랑을 확인하는 로맨스 서사의 관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소설 속 여성들이 무장한 군인들과 극한의 폭력이 일상화된 유사 전쟁 상태에 무방비로 노출된 처지임을 주목한다면, 호감은 공포의 다른 표현으로 읽히게 될 것이다. 전쟁은 남성이 여성에 대한 소유 혹은 지배권을 갖게 되는 가부장제이며, 특히 군인은 미혼의 여성이자 폭도의 땅으로 낙인찍힌 Y시 여학교의 교사라는

19 디 그레이엄·에드나 롤링스·로버타 릭스비, 유혜담 역, 『여자는 인질이다』, 열다, 2019, 74-76쪽.

중첩된 약점을 가진 서경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쥔 권력자다. 소설 속 여성들은 고릴라를 비롯해 군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에게서 선량함 같은 인간성의 흔적을 찾고, 군인들이 베푸는 작은 친절에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 군인에 대한 호감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힘이나 혹은 여성들 간의 연대로 부당한 현실을 빠져나올 수 없다고 직감했음을 암시한다. 일례로, 수용소로 변한 Y여중학교는 전시 못지않은 공포 속에서도 수감당한 여학생과 감시자인 군인 간의 이성애적 감정으로 이상한 활기를 띤다. 감금 당해 귀가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은 감시자인 군인들의 관용에 기대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군인들은 감금된 여성들을 통해 권력의 소재를 분명히 알게 됨으로써 남성으로서 우월감을 느껴 사소한 친절을 베푼다.

> "이거 서울 집의 주소야. 어머니가 계시니까…… 나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거근 종종 가서 돌봐드리고 곧 편지해요….. 난 너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
> (…)
>
> "싫은가?"
>
> 서경은 숨이 가빠올랐다. 좌우건 상하건 고개를 저어야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지금, 고릴라의 응시하는 무서운 힘은 서경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대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경은 무언지 동통(疼痛)하는 마음을 느끼며 울고 싶어졌다. 다음 순간 서경의 가냘픈 몸은 고릴라의 억센 팔 안에 안겨 있었다. 으깨질 만큼 죄며 입술을 누른다. 서경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숨이 막혀 밀어내려고 꿈틀대도 무쇠 같은 팔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215-217)

위 인용문에서 고릴라는 자신이 머무는 숙소인 부산의 백조호텔로 서경을 부르는데, 서경은 고릴라의 품에 안겨 "무언지 동통하는 마음을 느끼며 울고 싶"다는 신음을 토해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경은 "모닥불의 나비"처럼 그가 부른다고 호텔방에 찾아간 자신에 대한 "엷은 후회와 동시에 비밀의 기쁨"을 고백하며 "아무리 추한 남자에게서도 열렬한 구혼의 말을 듣는 것은 여자로서 그다지 기분 상할 일이 아닌 모양"이라고 독백한다. "비밀의 기쁨"이라는 서술은 서경이

남성의 ‘연물’이 된 데에서 여성적 허영심을 느끼고 있다기보다 강간을 당하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7장 ‘시티 오브 동래’에서 서경은 Y시를 떠나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선상에서 고릴라와 군인들에 대한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혜련과 함께 원동휘를 거대한 우유통 속에 숨겨 Y시를 탈출시키려고 했던 일이 발각됨으로써 서경은 고릴라의 격노를 산 후이기 때문에 공포는 더욱 커진다. 원동휘와 혜련이 수사대에 체포되어 Y시로 되돌려보내진 후 서경은 “삼천 톤급의 선박 안에 통틀어 여자라곤 자기하나뿐”(177)인 상태, 즉 젊고 혈기왕성한 남성 병사들로 꽉 찬 공간에 홀로 남겨진다. 서경은 “안으로 쇠를 채우”(176)라는 이중위의 당부대로 문을 걸어 잠그지만 결코 깊이 잠들지 못한다.

배 위에서의 밤, 서경은 호출을 받아 밀폐된 선실에서 “불룩한 어깨며 젖가슴”을(182) 드러낸 채 침대 위에 비스듬히 앉은 고릴라를 마주하게 된다. 서경은 마치 “폭군 네로”(181) 같다고 적의를 드러내지만 “그의 세련되지 못한 야생의 습벽이라치고, 근본 의도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자는 것이라면 미워할 필요까진 없지 않은가.”(183)라고 생각한다. 고릴라가 서경을 강간하고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을 직감하고 있기에 그의 시선을 맞받아치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면서도 “고릴라는 그날 밤의(강간을 시도하던 밤-필자) 기억만 지워버린다면 그 이도 친절했다.”(189)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강서경의 이러한 감정변화는 인질이 인질범에게 대항해 자기 파괴로 다다를 수 있는 큰 투쟁에 뛰어들기보다는, 가해자에게서 인간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냄으로써 위험 상황에 적응하고 생존의 활로를 찾고자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적대감이 호감으로 바뀌는 것은, 인질이 위험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데 따른 공포 반응으로 살고자 하는 인질이 협상을 시도했음을 의미한다.

강서경의 이야기는 비단 특정한 개인의 난해한 정신역동이 아니라 전쟁과 냉전 반공체제가 여성의 안전에 가하는 위협으로 인해 이성애자 여성들이 겪는 혼란에 대한 반영이자 은유다. 서경이 고릴라와의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여순사건의 기억이 다 지워지지도 않은데다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서경이 더욱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9장 ‘재회’에서 강서경은 서울로 되돌아와 기울어진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고릴라와는 달리 지적 면모를 풍기는 이병수 대위와 가까운 사이가 된다. 강서경은 본래의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회복

한 듯, 고릴라가 여순사건을 성공적으로 진압해 중령으로 진급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은 무슨 공이에요? 사람 죽인 공?"(240)이라고 야유한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고, 고릴라의 도움으로 국군들의 좌익 사냥으로 총상을 입은 남동생 훈이의 생명을 구하게 되자 서경은 그를 "'구원자 하느님'"이나 "생명의 은인"(324)으로 여기게 된다. 고릴라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서경은 피난길에 동생을 잃고 유능한 산파였지만 현재 '백치'가 된 어머니와 함께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 독립운동가의 딸로 아버지 없이 씩씩하게 성장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취약성이 증가됨으로써 서경은 극한의 수난에 노출되고, 거듭된 수난 속에서 마치 자포자기하듯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고릴라와 결혼한다. 그는 고릴라는 친절한 사람이고, 자신이 그를 좋아하고 있다고 여기며,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두 사람은 연애하는 애인들처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점차 다정한 관계가 된다.

서경의 애정 생활 혹은 결혼을 '성폭력 연속체' 개념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리즈 켈리는 성폭력을 강간에서 매매춘, 연애, 결혼까지의 연속선상에 배치하며, 강간, 매매춘, 연애, 결혼사이에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서 '성폭력 연속체'라는 용어를 통해 여성의 이성 간 성행위 경험은 압력에 의한 선택에서 힘에 의한 강제까지의 연속체 속에 존재한다고 설명한다.[20] 앞서 선상과 호텔 장면에서 보았듯이 고릴라는 전시 중 여성이 느끼는 불안을 이용해 강서경을 성적 대상으로 타자화했다. 그럼에도 서경은 그가 통행증을 내어주지 않으면 서울로 되돌아갈 수 없기에 그의 야간 호출에 순응하고 청혼을 거부하지 못했다. 결혼은 권력을 가진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는 것을 대가로 여성에게 안전과 지위를 제공해 주는 교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경은 고릴라가 제공하는 안전과 보호를 받기 위해 고릴라와 그의 늙은 어머니 그리고 전실 자식을 돌보기로 결심하게 된다.

박옥순의 연애와 결혼은 강간/매매춘/연애/결혼의 경계를 짓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서경의 제자인 옥순은 군기사령부의 소

20 리즈 켈리는 레기나 뮐호이저와 메리 루어즈 로버츠가 전시하에서 성폭력의 연속성과 그 분단을 구별짓기가 어렵다는 논의를 가져와 '성폭력 연속체' 개념을 만들었다. 우에노 지즈코 외, 앞의 책, 27쪽.

위 한상철과 데이트를 하던 중 야산에서 강간을 당한다. 그러나 옥순은 강간에 항의하기보다는 한상철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신분이동에 성공하고자 한다. 옥순은 공산주의자로 몰려 고문 수사를 받고 있는 원동휘를 구출하려 하며, 늙은 남자와의 결혼으로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어머니보다 훨씬 더 안정된 신분과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전략을 짠다. 옥순은 성녀/악녀 이분법에 기반한 남성중심서사에서와 달리 악녀로 전형화되기보다는, 군인과의 결혼으로 안전과 부를 얻고자 하는 '명민한' 여자로 재현된다. 전쟁은 여성 멸시를 제도화하고 남성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가부장제이기에, 작가는 옥순의 선택에 대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다.

수전 브라운밀러는 계급, 사유재산, 생산수단의 형성 과정에서 강간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주목한 아우구스트 베벨의 분석을 바탕으로 "강간은 남성의 특권일 뿐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힘을 과시하는 기본 무기이자 여성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며 남성의 의지를 관철하는 주요 동인"[21]이라고 설명한다. "언제든 강간당할 수 있다는 공포야말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도록 만든 최초의 원인이며, 역사적으로 여성이 어떻게 의존적 존재가 되었고 보호를 대가로 한 짝짓기에 의해 가축화되었는지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참조하면 남성에게 전쟁은 희생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기회이자 특권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지배와 성적 쾌락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쟁과 냉전체제가 남성에게 주는 확실한 기득권이다. 전쟁은 남성에게 허락된 암묵적인 강간 면허로 군인은 여성을 육체적으로 굴복시키고, 특정한 여성을 선택해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사실성 여성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다. 한상철은 전시 하 군인이라는 우월적 권력을 이용해 옥순을 강간하고, 가장이라는 권위를 쉽게 얻는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한 집단은 민간인일 때는 꿈도 꿔보지 못한 힘을 손에 쥐는데, 그 힘은 그 힘은 남성에게만 허용된 힘"[22]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저학력자로 이렇다 할 사회자본이 없는 '주변부 남성성'이지만 전쟁은 군대라는 소속을

21 수전 브라운밀러, 박소영 역,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오월의 봄, 2018, 25쪽.

22 수전 브라운밀러, 위의 책, 54쪽.

제공함으로써 그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커다란 성적 편의조차 누리게 한다.

결혼은 여성에게 행복이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상실의 경험으로 그려진다. 서경은 결혼 후 현실에 안착하지 못한 채 이미 혜련의 남편이 된 원동휘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와 위태로운 만남을 이어가고, 군인의 적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부유한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한상철의 밀수를 돕는 등 윤리적 위기를 겪는다. 서경을 괴롭히는 것은, 여순사건부터 6.25 전쟁까지 자신이 겪은 수난이 무의미하다는 절망감이다. 처형장에 끌려가는 등 죽을 위기를 겪고, 원동휘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언 땅에 남동생을 묻어야 했던 수난과 고통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라는 절망감이 서경을 사로잡는다. 결혼 후 고릴라가 전투에서 한쪽 다리를 잃어 장애를 얻게 되자, 서경이 "불구의 남편과 무능한 가족들. 그 모두가 꼭 자신에게 내려진 죄의 대가"(514) 같다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군인과 전쟁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삶을 짓밟았다는 내면의 절규와 항의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고릴라가 총기 사고를 당하자 서경은 "살아야 한다. 오로지 내 힘으로"(517)라고 삶의 의지를 다지며 착한 아내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사실상 서경은 자신을 강간하려 했던 남자와 그의 노모와 어린 딸을 돌보는 역할을 떠안는다. 전쟁과 반공냉전체제는 남성을 여성의 성, 노동, 감정의 '보호세 갈취자'로 지원하면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23]

소설 후반부에 이르면, Y시에서 겪은 수난의 무의미성으로 인한 공허에 시달리던 서경과 원동휘는 위로와 구원을 갈망하듯이 '민족주의'라는 대타자에 매달린다. 자신들이 겪은 수난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줄 큰 이념이나 가치를 통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분노와 슬픔을 달래고자 하는 것이다. 원동휘는 고릴라가 불구의 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Y시에서부터 우리를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아왔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민족 이 땅을 등지고는 살 수 없어요. 모두가 제각기의 이득만을 노리고 날뛸망정 나 혼자만이라도 옳은 길을 찾아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516)라는 골자의 편지를 서경에게 보낸다. 여순사건으로 사랑이 좌절당함으로써 오히려 강렬해진 서로를 향한 애착을 이제는 내려놓자는

23 보호세 갈취에 관한 논의는『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가려진 피해자들의 역사를 말하다』를 참조할 것.

이별을 고한 것이다. 젊음의 상흔을 묻어둔 채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냉소적 지식인인 원동휘는 애국적 민족주의로 무장한 군인이, 당찬 신여성이었던 서경은 착한 아내이자 주부가 되는 것으로 입사(入社)를 시도한다. 이러한 결말은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남한사회에 반공냉전체제가 수립됨으로써 체제비판적인 지식인과 당찬 신여성이라는 주체가 사실상 허용가능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두 사람의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반공냉전권력에 순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소설의 제목은 두 사람이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절망'을 안고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며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은 '여순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그간 주목받았지만, 사회소설도 연애소설도 되지 못한 어정쩡한 이야기로 취급되어 왔다. 이는 민주화 이후 '기억의 정치'가 시작된 이후 한국문학이 국가폭력에 대한 발굴과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통해 탈냉전의 시대로 도약하고자 했지만, 공론장에서 친미와 반미, 좌익과 우익 같은 진영론적 주제에 의해 페미니즘 의제가 부차화되어 왔듯이 전쟁과 냉전체제가 여성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며 여성의 인간화를 제약해왔는가에 대해 상당히 무관심하고 또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문학 연구 역시 크게는 다르지 않아 냉전기 여성문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데, 1950-60년대 여성문학의 문학성과 정치성에 대한 불신은 이러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왔던 듯하다.

『절망 뒤에 오는 것』은 1960년 4·19 혁명이 기폭제가 되어 학문·사상·예술의 자유가 주창되는 시대적 분위기에 올라타 해방과 6.25 전쟁을 냉전 가부장제가 뿌리내리는 과정으로 재현한 1960년대 여성문학의 성과작이다. 전병순은 전쟁에 대한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적 목소리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문학 정전에서도 거의 조명되지 않았던 여성의 전쟁을 이야기한다. 산문 「『절망 뒤에 오는 것』을 잉태할 무렵」은 매우 흥미로운데, 작가가 자신이 여순사건과 6.25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과 증언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회

의하면서 “아니, 나도 고생은 실컷 했다. … 인생관이 변해 버리고, 지표를 잃고, 모든 의욕을 버리게 된 것만도 크나큰 피해가 아니고 무엇일까.”라고[24] 항변함으로써 지금까지 거의 주목되지 않았던 여성의 해방과 전쟁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해석의 틈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해방과 전쟁을 남성들의 상처이자 훈장이 아니라 반공가부장제가 형성됨으로 여성해방의 전망이 닫히고 여성의 종속이 심화되는 과정으로 새롭게 서사화한다. 강서경의 이야기는 전쟁과 냉전체제가 여성과 남성의 관계, 섹스, 힘, 권력을 보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매우 상세하게 보여준다. 『절망 뒤에 오는 것』은 사회소설과 여성소설을 분리하지 않고서 1950-60년대 여성문학을 새롭게 읽고 재평가할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는 작품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전병순, 「작가의 말」, 『절망 뒤에 오는 것』, 중앙일보사, 1987, 1-341쪽.

_____, 『또 하나의 사랑-전병순 에세이』, 경미문화사 1977, 277쪽.

_____, 『절망 뒤에 오는 것』, 삼성출판사, 1972, 1-520쪽.

논문 및 단행본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삼인, 2009, 49-54쪽.

김상기, 『제노사이드 속 폭력의 법칙』, 선인, 2008, 120-121쪽.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창비, 2021, 1-372쪽.

이시성, 「여순사건의 ‘다른 기억’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정치성: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제93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5, 187-219쪽.

이창현, 「4월혁명기 피학살자 기념사업과 그 의미」, 『사림』 제73호, 수선사학회, 2020, 223-252쪽.

24 전병순, 『또 하나의 사랑-전병순 에세이』, 경미문화사 1977, 277쪽.

전흥남, 「『절망 뒤에 오는 것』 오는 것에 나타난 '여순사건'의 수용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 제127호, 2010, 399-421쪽.
조은, 「냉전문화 속 여성의 침묵과 기억의 정치화」, 『여성과평화』 제3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3, 71-87쪽.
정호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결성과 진상규명운동-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2호, 2006, 41-76쪽.
최미진, 「사회적 멜로드라마의 역사성과 대중성—전병순의 『絶望 뒤에 오는 것』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319-343쪽.
최현주,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여순 10·19와 문학적 형상화」, 『인문학연구』 제57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173-196쪽.
하채현·문동규, 「10.19: 비국민과 개죽음」, 『픽션과 논픽션』 제5호, 2023, 135-160쪽.
디 그레이엄·에드나 롤링스·로버타 릭스비, 유혜담 역, 『여자는 인질이다』, 열다북스, 2019, 74-76쪽.
수전 브라운밀러, 박소영 역,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오월의 봄, 2018, 25쪽, 54쪽
우에노 지즈코, 아라라기 신조, 히라이 가즈코, 서재길 역,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가려진 피해자들의 역사를 말하다 』, 어문학사, 2020, 398쪽.

Abstract

A city that has fallen and a woman with Stockholm syndrome
–Focusing on Jeon Byung-sun's *What Comes After Despair*

Kim EunHa

Jeon Byeong-sun's "What Comes After Despair" is a women's narrative that explores the Yeosu-Suncheon Rebellion and the Korean War, depicting the thwarting of wom-

en's dreams of equality and freedom through liberation and war, and their subjugation to Cold War patriarchy. Kang Seo-kyung, a bold intellectual, experiences the Yeosu-Suncheon Rebellion and the Korean War, experiences a failed love affair with Won Dong-hwi, and settles into a divided, anti-communist society by becoming the wife of Captain Lim Hyung-gyu, who, seemingly possessed by Stockholm Syndrome, attempted to humiliate her. Kang Seo-kyung's marriage is characterized by "protection tax extortion," where a man who claims to provide protection exploits women in return. To Lim Hyung-gyu, Kang Seo-kyung is a spoil of war. The author realistically reconstructs the unfolding of the Yeosu-Suncheon Rebellion and the Korean War, drawing on women's experiences to the point where historical events cannot be considered mere backdrops to a romantic narrative. "What Comes After Despair" can be read as a female narrative that asks women what liberation and war are.

Key words: Jeon Byung-soon, 1960s women's literature, the Yeosun Incident, the Korean War, women's narrative, Cold War patriarchy, Stockholm syndrome, etc

논문제출 / 2025.11.14.
논문접수 / 2025.11.16.
게재확정 / 2025.12.08.